새 성장동력에 목말라… 30대기업 인재상은 '도전정신'

잡코리아·알바몬, 키워드 분석

삼성 열정으로 미래 도전하는 인재

SK 틀 깨고 패기 실천하는 인재

기아차 대담한 변화 이끄는 혁신가

"미래에 도전하라(삼성), 기존의 틀을 깨라(SK), 정해진 질서에 도전하라(기아차)"

국내 대기업이 추구하는 인재상이 '글로벌 경쟁력'에서 최근 '도전정신'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시장 진출이 화두였던 예전과 달리,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고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들의 경영 방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시가총액 기준 상위 30개사 중 홈페이지에 인재상을 공개한 28개사의 인재상에서 추출한 키워드 239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전·도전정신'이 22회 등장해 응답률 78.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10곳 중 약 8곳이 도전하는 인재상을 추구하는 셈이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은 '끊임없는 열정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인재'를 인재상 중 하나로 꼽았고, SK는 '스스로 동기 부여하여 높은 목표를 도전하고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한 실행을 하는, 패기를 실천하는 인재'를, 기아자동차는 '기존의 정해진 질서에 도전해 대담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혁신가'를 인재상 중 하나로 소개했다.

도전정신 외에 대기업 인재상에 많이 등장하는키워드로는 '창의·창조'로 응답률 64.3%였고, 이어 '혁신(60.7%)', '열정(57.1%)' 키워드도 각각 과반수이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밖에 ▲책임감(42.9%) ▲변화(39.3%) ▲인간미·인간적(39.3%) ▲미래가치·미래지향(35.7%) ▲도덕성(32.1%) ▲정직·바른행동(28.6%) 순으로 대기업 인재상에 많이 등장했다.

현대자동차는 '새로운 생각의 창조자, 새로운 가능성의 탐험자'를 인재상으로 꼽았고, LG는 '팀웍을 이루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삼성은 '창의와 혁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를, 기아자동차는 '세상에 없던 새로움을 만들어가는 창조가'를 인재상 중 하나로 소개하는 등 창의적인 인재, 창조적인 인재를 추구하는 대기업도 많았다.

대기업의 인재상은 8년 전인 지난 2010년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대기업 인재상에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국제감각·글로벌경쟁력'(58.1%)과 '창의·창조'(58.1%)였고, 이어 '도전·도전정신(51.2%)', '전문가·전문성(48.8%)', '팀워크·조직력(25.6%)' 순으로 대기업 인재상에 많이 등장 했었다.

잡코리아 변지성 팀장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경쟁력이 강조되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고 도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도전정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교비 횡령' 등 사립전문대 3곳 비리 적발

교육부, 서울예대 총장 해임 요구

교직원 46명 징계요구·사업비 회수

정부의 국고지원금을 제멋대로 사용하는 등 비리와 부정이 드러난 사립 전문대 3곳이 적발됐다. 입학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았으면서 입시 관련 수당을 받는 등 교비를 횡령한 혐의가 확인된 유덕형 서울예대 총장에 대해선 교육부가 해임을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제보와 언론 보도 등으로 비리 문제가 제기된 대학 중 비리 내용이 구체적이고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서울예대 등 3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서울예대 유 총장 등 교직원 6명은 지난 2017학년도 입시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으나 수당 2200여만원을 받았고, 총장과 교직원 등이 출장목적과 무관한 일정에 출장비를 집행하는 등 38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대학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비로 계획에 없던 일부 기자재를 5100여만원어치를 구입하는 등 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했고, 학생 교육기반 구축에 써야 할 사업비 1억5700여만원을 본관 회의실 구축 등에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법인전담 근무 직원 인건비 5300여만원과 법인 재산 관련 공사비용 3억35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대학 회계 규정도 어기는 등 비리와 부정 혐의 14건이 확인됐다.

아울러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서울예대 미투(#metoo) 관련 피해 학생 2차 피해 방지 등 학교측의 처리상황을 점검하고, 조사 내용은 수사 참고자료로 경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0일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친 뒤 서울예대 총장에 대한 해임과 관련 교직원 4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비 2억2300여만원을 포함한 부당 집행 금액 6억5800여만원을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총장이 최대 45일간 장기 해외출장을 계획하면서 출장 목적과 무관한 일정에 출장비를 지출한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충북 음성의 B대학과 경북 포항의 C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공지된 모집정원보다 학생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등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어긴 사례를 적발하고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B 대학은 2018학년도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과의 모집정원(30명) 보다 61명을 초과 모집한 사실이 확인됐고, C 대학은 2007~2009학년도 입시에서 3년간 수시1학기 모집에서 총 모집정원보다 1106명을 초과 모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C 대학이 이를 토대로 충원율을 허위로 부풀려 국고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수사 결과를 고려해 별도 조치할 방침이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앞으로도 위법·부당한 회계 및 업무처리 등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대처해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조희연 "서울교육 혁신 지속할 것"

진보후보 선출… 6대 정책비전 발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진보진영 단일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선거운동본부 사무실에서 6대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재선에 도전해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선출된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교육과정 혁신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교육감은 9일 오전 서울 충정빌딩 선거운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5개의 1차 정책 공약이 담긴 '6대 정책비전'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6대 정책비전에서 '서울-MOOC(무크·온라인 실시간 수업) 스쿨' 운영과 학습관리 시스템 확대, '초등학교 안성맞춤 교육과정' 전학년 확대, 중학교 자유학기제 내실화, 협력적 창작교육 '서울형 메이커 교육' 인프라 구축, '협력종합예술교육'의 초등·고등학교 확대 시행 등 미래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강서, 강남, 동부 특수학교 건립 지속 추진, 학교급별 첫 학년의 기초학력을 다지는 '교과 학습보정제', 공립유치원 대폭 확대,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한 '학원 일요일 휴무제' 제도화와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 '학생갈등 조정기간' 도입, '모든교육지원청에학교폭력-학생인권-교권 전담지원팀 운영, 스쿨미투 긴급대책팀 지속 운영을 통한 특별감사 강화, 고교 및 사립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등의 공약을 냈다. /한용수 기자

지난 4일 열린 '2018년 교육부 재정지원 특성화 사업 선정 설명회'에 참석한 프로젝트 참석 멤버들이 기념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앞줄 좌측 세 번째부터 경희사이버대학교 김혜영 부총장, 방성원 교수(사업책임교원), 경희대학교 송주영 교수) /경희사이버대

경희사이버대, 사상 첫 재정지원사업 선정

6개 콘텐츠 제작·체계적 교육 수립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조인원)가 사이버대학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첫 재정지원사업인 '2018년 생애주기별 성인학습자 역량 강화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주관하는 '생애주기별 성인학습자 역량 강화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은 일자리 변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개방형 평생학습 체제 구축, 일-학습 병행 교육시스템 조성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공모에 참여한 17개 사이버대학 중 경희사이버대를 비롯해 서울 소재 3개 대학 등 8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 생애주기별(▲1기: 19-24세 ▲2기: 25-40세 ▲3기: 41-65세 ▲4기: 65세 이후)로 사회적 필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과정 및 콘텐츠를 개발·운영하게 된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세계시민으로서의 문화다양성 역량 개발 교육과정'을 제안, 사업에 선정됐다. '세계 시민사회의 글로벌 리더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쌓아온 경희의 경험·역량을 기반으로 6개의 콘텐츠를 제작, 기초부터 심화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수립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하이트진로, 신입사원 3개월 연수 시작

하이트진로가 올해 채용한 공채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작했다.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가 지난 8일부터 3개월간 올해 채용한 공채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신입사원 연수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두 달간 진행한 하이트진로 대졸 신입사원 모집에는 1만2000명의 지원자가 몰려 17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류전형-1차면접-2차면접을 거쳐 70여명의 신입사원을 최종 선발했다. 신입사원들은 교육장 입소 전 하이트진로 서초동 본사에 모여 임직원들과의 첫만남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김인규 사장으로부터 회사 뱃지를 수여 받았다.

하이트진로 신입사원은 8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의 합숙교육을 진행한 뒤 수료와 함께 영업과 생산 현장으로 투입돼 최대 10주간 회사 전반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회사의 특성을 반영해 각 공장에서 맥주와 소주를 생산하는 공정을 경험하고 가장 치열한 시장인 서울과 부산에서 영업 현장을 체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부서별 원활한 업무 협업을 위한 기초를 다지며 실무형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30여명을 수시 채용한 것을 비롯해 올해 상반기 통합법인 출범 이후 최대규모인 70명을 시작으로 연내 100여명의 신입사원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올 공기업 신입 초임 평균 3475만원 집계

올해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초임이 평균 3475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초임이 526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인크루트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361개 공공기관(공기업 35곳, 준정부기관 93곳, 부설기관 23곳, 기타공공기관 210곳)의 2018년 신입사원 초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들 기관의 초임 연봉을 구간별로 분류해보면,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인 기관이 61.5%(222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19.7%(71곳),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 18.3%(6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5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을 지급하는 기관은 2곳(0.6%)에 그쳤다. 전체 공공기관의 초임 평균연봉은 3475만원이었다. /한용수 기자